

## S&P,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

### □ '안정적(Stable)'에서 '부정적(Negative)'으로 등급전망 하향조정

- Standard and Poor's (S&P)는 지난 3월 27일,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, 대외거래 악화 등을 근거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등급전망을 '안정적(Stable)'에서 '부정적(Negative)'로 하향조정하였음.

\* 동국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은 'BB-'를 유지 중

- 이에 앞서 Fitch Ratings는 지난 2008년 12월, 국제유가 하락세와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(Niger Delta)의 정정불안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한 바 있으며, OECD 또한 모델등급(정량)이 3등급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, 치안 불안 등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최근 수년간 6등급을 유지해오고 있음.

#### < 나이지리아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>

- \* S&P : BB- → BB- (2009. 3) 유지
- \* Fitch : BB- → BB- (2008. 7) 유지
- \* 당행 : C3 (2008. 3) → C3 (2009. 4) 유지
- \* OECD : 6등급 (2007. 10) → 6등급 (2008. 10) 유지
- \* ICRG : 107/140 (2008. 3) → 103/140 (2009. 2)
- \* I.I. : 88/174 (2008. 3) → 87/177 (2008. 9)
- \* Euromoney : 90/186 (2008. 9) → 88/186 (2009. 3)

□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가 등급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

- 나이지리아는 그동안 석유수출 증가, 농업·금융서비스 등 非석유부문의 호조,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6%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으나, 2008년부터 심화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非석유부문 또한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이 둔화 추세에 직면해있음.
- 동국의 석유산업은 총 GDP의 25%, 재정수입의 70-80%, 총 수출의 90%를 차지하고 있어, 현 국제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, 재정수지, 대외거래 등 경제지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음.
- S&P의 애널리스트 벤 파옥스(Ben Faulks)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나이지리아의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(Niger Delta) 지역의 정정불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불안요인으로 평가, 2009년을 거점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전환, 재정수지의 적자폭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.
- 아울러, EIU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2009년에는 절반 이상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\* FDI 규모: 125억 달러('07) → 100억 달러('08) → 30억 달러('09)

<그림 1> 국제유가 추이(배럴당 달러, 브랜트油 기준)



<표 1>

주요 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5	2006	2007	2008 <sup>e</sup>	2009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6.5	6.0	6.2	6.8	2.7
재정수지/GDP	-1.2	-0.6	-0.7	-2.7	-5.5
소비자물가상승률	17.9	8.2	5.4	11.5	11.0
경상수지	24,202	13,796	21,972	5,170	-13,763
경상수지/GDP	7.8	11.0	1.6	2.9	-11.7
상품수지	30,781	28,031	33,138	31,781	-3,452
수출	48,069	59,144	65,086	76,835	31,888
수입	17,288	31,113	31,948	45,054	35,340
외환보유액	28,279	42,298	51,333	59,849	45,467
총외채잔액	22,178	7,693	7,783	8,275	7,568
총외채잔액/GDP	21.5	6.1	5.5	4.6	6.4
D. S. R.	16.8	10.7	1.7	0.6	0.5

자료: IMF, EIU

□ 정부의 추가적인 개혁노력 없이는 신용등급의 개선 가능성 낮아

- 최근 세계경제 상황, 나이지리아의 재정 및 대외거래의 악화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, 당분간 동국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.
- 그러나 현 야르아두아(Yar'Adua)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경제개발계획(고용 창출, 농업 등 非석유부문의 성장, 니제르 델타(Niger Delta) 지역의 치안 개선 등)의 성과에 따라 향후 신용등급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정부의 추가적인 개혁노력이 요구됨.
- 레미 바바롤라(Remi Babalola) 나이지리아 재경부 장관은 “이번 S&P의 전망 하향조정은 예상해왔던 일”이라며, “정부의 개혁조치를 통해 충분히 호전 가능할 것”이라 대응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도 상존함.

전문연구원 김예리(☎02-3779-6686)  
E-mail : [yeliekim@koreaexim.go.kr](mailto:yeliekim@koreaexim.go.kr)